

2014 사회

1번

제시문들을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높은 것부터 배열하면 제시문 (가), (라), (다), (나)의 순이 된다. 이는 개인의 사회 형성여부와 그 양상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우선 제시문 (가)에서 개인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사회가 전적으로 공평한 관망자에 의해 형성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때 공평한 관망자는 공감력과 상상력을 갖춰 개개인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한다. 제시문 (가)는 이러한 이상적 존재를 통하여 개인들의 선택을 사회에 최대한 적용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를 조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시문 (라)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영향은 제시문 (가)보다는 작다. 이는 사회가 선한 개인들의 유대를 통해 구현되기는 하지만, 개인들이 도덕적이지 않을 경우 화합이 이뤄지지 않아 비교적 그 영향력이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라)에서 개인들은 사회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시민적 우의가 제대로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동선을 중시하고 불의를 엄격하게 다스리는 등의 모습이 나타나므로 제시문 (다)에서보다는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제시문 (다)는 제시문 (라)에서와 유사하게 사회가 개인들의 결속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개인들의 영향력은 제시문 (라)보다 약하다. 이는 개인들이 이기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않아 집단 이기주의가 나타나는 등 사회가 비도덕적인 모습을 취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개인들이 선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도덕적으로 이끌어 가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개인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제시문 (라)에서보다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나)에서 개인은 사회의 영향을 수용할 뿐 사회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때 개인은 사회로부터 빛, 유산, 기대 등을 물려받고 사회로부터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는 개인이 오히려 사회에 의해 지배받는 모습으로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띠는 나머지 제시문들과는 차별성을 지닌다.

2번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적 요구가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이로 인한 갈등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제시문들은 이에 대해 각기 다른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는 사회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에 주목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시문 (가)와 (다)에서는 개인적 측면보다는 사회적 측면의 해법을 중시한다. 우선 제시문 (가)에 따르면 공평한 관망자의 관점에서 규칙을 만들어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공감력과 상상력을 갖춘 합리적 존재인 공평한 관망자의 관점을 따른다면 개인들의 욕구들을 객관적으로 판별하고 이상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개인들의 만족을 최대한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 한편 개인들은 합리적으로 제정된 규칙에 따를 뿐이므로 개인적 측면의 해법은 비교적 덜 중요한 것이 된다.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는 집단이 이기적인 자연적 충동을 억제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사회 세력을 만듦으로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개인은 도덕적이며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관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집단은 이기적이다. 현대사회의 갈등은 이러한 집단의 이기심으로 인한 갈등이라 볼 수 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사회 제도나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

반면 제시문 (나)에서는 개인적 측면의 해결법이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개인은 사회로부터 기대와 의무를 부여받고, 그에 따라 도덕적 특수성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개인이 사회가 물려준 기대와 의무 등을 잘 내면화한다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이 사회가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면 개인이 행하는 행위가 곧 타인에게도 이로운 행위가 되어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라)에서 우의라는 개념이 정치적, 윤리적인 결속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해법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개인적 측면에서 갈등은 일부 시민들이 탐욕스럽고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므로, 이때의 해법은 개인을 도덕적으로 만드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나아가 사회적 측면을 고려할 때, 갈등은 선한 개인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일어난 것이다. 이는 정치적 공동체의 유대를 강하게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